

일본 수출규제/한일 관계 동향(2020.8.22.~2020.8.28)

1. 지소미아

- 8월 24일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하지 않고 ‘종료 통보 효력의 조건부 정지’ 상태를 유지¹⁾
 - 2020년 8월 24일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협정의 효력이 유지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6년 11월 23일 체결되었으며, 어느 한 쪽이 연장 통보 시한인 90일 이전에 협정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형태임.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지소미아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과거에 설명한 입장(종료 통보 효력의 조건부 정지)과 동일하다고 답변
- 일본 언론은 지소미아가 당분간 유지된다고 보도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
 - 일본 주요 언론들은 지소미아가 당분간 유지될 것(자동연장)이라고 보도²⁾
 - 종료 선언이 없었던 배경으로 닛케이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의 대응 및 부동산 대책과 같은 정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고노 일본 방위장관은 지소미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관련, “북한 미사일 문제를 생각한다면 한미일 3개국 연대는 중요하며, 향후에도 이 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³⁾
 - 한편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는 현재 종료 통보 효력의 조건부 정지 상태로서, 언제든지 종료가 가능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1) 「조용히 넘어간 지소미아...압박 카드 유효할까?」, 「KBS」, (2020. 8. 25).

2) 「韓国、対日強硬を「封印」、GSOMIA、破棄の通告期限。」, 「日本経済新聞」, (2020. 8. 25) 및 「GSOMIA、自動延長決定」, 「朝日新聞」, (2020. 8. 26) 및 「日韓：GSOMIA当面維持へ 終了期限、韓国通告せず」, (2020. 8. 25) 및 「GSOMIA終了通告期限、当面維持へ」, 「産経新聞」, (2020. 8. 25).

3) 「河野防衛相：防衛相 「日韓連携は重要」」, 「毎日新聞」, (2020. 8. 26).

2. 수출규제 WTO 제소 관련

- 산케이신문은 일본 수출규제 문제가 WTO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약 2년 이상 걸리는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⁴⁾
 -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데 자신이 있으며, 미국이 지지할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도
 - 미국은 “안전보장을 고려하는 한 이 문제(일본의 수출규제)를 WTO에 중재를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를 지지함. 산케이신문은 미국의 견해가 제3국의 의견으로서 심리에 참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의 틀 안에서의 조치로서 패널심리에서 질 리가 없다”며 승소에 자신을 표명
 - 다만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에 상소기구 심리에서 패배한 전례를 지적하였으며, 규제의 정당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1심에서 일본이 승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한편 산케이신문은 패널 설치부터 최종심리까지 약 2년 이상 걸린 최근 사례를 볼 때,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도

4) 「半導体材料の輸出管理厳格化 WTO日韓攻防 長期戦へ 判断まで2年前後か」, 「産経新聞」, (2020. 8. 27).